

하상주보

천주교 성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2024년 12월 25일
제2032호

주임신부: 배하정 다니엘

보좌신부: 이태섭 요한사도

사도회장: 안민철 미카엘

연령회장: 홍의훈 요셉 (703 966 8206)

사무실: 703 968 3010

팩스: 703 968 3013

주소: 4712 Rippling Pond Drive, Fairfax, VA 22033

이메일: sthasang@gmail.com

주님 성탄 대축일 (다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루카 2,14)



〈목동들의 경배〉, 지오반니 카스탈리오네

밤

제 1 독서 이사 9,1-6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습니다.

화답송 시편 96(95)

◎ 오늘 우리 구원자 주 그리스도 태어나셨다.

제 2 독서 티토 2,11-14

모든 사람에게 하느님의 은총이 나타났습니다.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구원자 주 그리스도 태어나셨다.◎

복음 루카 2,1-14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가 태어나셨다.

낮

제 1 독서 이사 52,7-10

땅끝들이 모두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화답송 시편 98(97)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제 2 독서 히브 1,1-6

하느님께서서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거룩한 날이 우리에게 밝았네. 민족들아, 어서 와
주님을 경배하여라. 오늘 큰 빛이 땅 위에 내린다.◎

복음 요한 1,1-18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MERRY Christmas

우리 본당 모든 교우분들께
 성탄 축하 인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오셨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기
 위해 오심을 감사 드리며
 우리 본당 교우분들 가정엔 주님 사랑과
 은총이 가득한 성탄 되시길 기도합니다.
 성탄 축하드립니다!

- 본당 신부 드림 -



Merry Christmas~!

차갑고 어지러운 이 세상에
 아기 예수님께서 한줄 빛과 희망이 되어 오셨습니다.
 이 빛과 희망으로 우리 모두가 기뻐할 수 있기를
 희망해봅니다.
 또한,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빛과 희망이 되어주기를 희망해봅니다.
 이를 통해 온 세상이 성탄의 기쁨으로
 가득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성탄 인사 나눕니다.
 모두 주님 성탄 축하드립니다.

- 이태섭 요한사도 신부 -



† 찬미 아기 예수님,

성탄 축하드립니다.

다른 어느 해보다도 어수선한 지금, 이 지구별에
 올해도 어김없이 아기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새로운 빛과 희망이 되어 오십니다.
 아기 예수님께 저희 모두를 위해 축복을 청합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가정과 온 세상이 주님의 사랑과 평화로
 가득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 이 스텔라 수녀 -

임마누엘!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어, 아기가 되시어 베들레헴 마구간 구유 위에,
 가장 낮은 곳에, 우리의 마음 안에 탄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와 찬미를 드리며, 성탄의 은총이
 형제자매 여러분 모두에게 기쁨과 평화로 넘쳐나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2025년 새해가
 희망으로 가득 채워지시길 기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 안 다니엘 수녀 -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시는 **희망**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루카 2,11)

성경 말씀이 분명히 전하듯 성탄은 우리가 왜 **희망**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를 되새기게 합니다.
주님의 오심은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나 상황에 처한다 해도 우리에게 더욱 굳건한 희망을 줍니다.

세상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얻고자 하는 희망, 분열이 아닌 화합을 향한 희망,
그리고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희망,
우리는 이 모든 희망을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희망의 순례자” **Pilgrims of Hope** 라는 주제로
교회의 회년인 2025년, 성년(聖年)의 개막을 선언하십니다.

또한,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로마 5,5)는 바오로 사도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욱 강해지도록 격려하십니다.

신앙 안의 한 가족으로서, 이번 성탄절과 회년 내내 우리의 삶이 사라지지 않는
희망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느님의 은총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함께
영원한 행복을 향하여 서로 믿음과 사랑의 여정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을 맞아 여러분께 우리 주 예수님의 은총과 평화가 항상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희망을 여러분의 이웃과 함께 나누시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Michael F. Burbidge

마이클 버빗지 주교

